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

십자가

"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
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"(마 10:38).

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위하여
바로 그 십자가를 자기 자신이 처형장까지 매고 가는
기막힌 심정을 보여 준 것입니다.

이것이 제자의 길이요 그리스도인이
세상에서 치러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.

자기가 죽어야 할 그 나무를 자기가 매고 가는 것입니다.
각 사람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.

그리스도인의 길이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기분 나쁜 사건,
기분 나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쁘게
감당하고 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사건으로 변할 수
있다는 것입니다.

"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섬겨라.
어차피 만나는 것이다.
기쁘게 그 사람을 만나라.
기쁘게 그 일을 하라.
손해를 보아라."

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.

그렇게 하고 나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.
내 인생도 변하고 나를 싸고 있던 그 모든 상황도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.

- 하용조

http://file.onnuritv.com